

# 技術革新의 旗手

## 日新産業 朱昌均社長

흔히 自手成家한 사람들에게서 풍기기 쉬운 딱딱한 人相과는 달리 朱昌均社長の 첫 印象은 그지 없이 溫厚하기만 하다.

1.4 後退때 南下한 氏는 釜山의 大韓造船公社에서 機械設計를 맡아 했을 뿐 元來 氏가 體得한 壓延技術을 消化할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事業的 眼目이 있었던 氏는 廢棄된 飛行機의 알미늄 機體를 利用해서 주전자 냄비等 廚房用品을 生産하는데 着眼했다.

原價의 約 30倍로 利潤이 좋았다고 어스룩했던 當時를 回想하며 朱社長은

『그러나 어디 廚房用具나 生産하고 있데서야...』

하는 不滿을 품었다며 이때 벌써 가슴속엔 커다란 企業體의 靑寫眞을 떠가고 있었다.

그래서 1954년에 新産業株式會社를 創立하고 國內最初로 亞鉛鍍鋼板製造施設을 竣工하여 年間 18,000톤에 達하는 亞鉛鍍鋼板輸入을 國産으로 代替供給함으로써 事業的 基盤을 다져갔다.

1960년부터는 本格的으로 鋼管製造設備를 하고 한편 日新産業으로 改編하여 해를 거듭함에 따라 事業規模를 擴張해 갔다.

約 10年前 日本이 美國에서 導入하여 技術不足으로 一年半이나 稼動을 못한 450,000 싸이클 高周波施設을 大膽하게 導入하여 獨自의인 힘으로 電纜造管하는데 成功했으며 5年前에는 年間 10萬噸의 生産能力을 가진 冷間壓延工場을 梧柳洞에 新設하여 現在 國內需要를 充足시키고 餘勢로 各種鋼板을 輸出하고 있다.

이와같이 各種鋼管과 壓延鋼板이 나오게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朱社長の 技術研究와 革新이 밀거름이 되었음은 勿論이다.

國內需要形便에 맞추어 또 許諾된 資金事情에 맞추어 多目的 造管機械施設을 손수 며칠씩 밤을 새워 設計하고 이를 施設한 朱社長の 技術實力과 精力은 아무도 뒤따르지 못하리라.

따라서 朱昌均社長은 어떤 時期에는 오히려 日本보다 技術革新이 빨랐다고 自負하고 있다.

『韓國의 利點은 勞賃이 低廉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實地에 있어서는 生産性이 낮기 때문에 크게 德 볼게 없습니다.』

朱社長은 韓國의 現實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其實 超人的으로 生産性을 높이고 있는 日新의 企業體制는 水準以上이다.

即 年間 10萬噸의 生産能力의 壓延機械로 12萬噸의 生産實績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朱社長の 卓越한 技術的 識見과 투철한 企業理念의 所産이며 結코 우연한 奇蹟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日新의 자랑은 높은 生産性만이 아니다. 世界어느 市場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이 없는 品質의 優秀性이다.

오늘날 日新이 國際競爭에서 頂上을 바라보게 되기까지 朱社長の 숨은 功勞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每年 優秀한 技術者를 선발해서 海外에 파견하고 있으며 또 수시로 海外市場에 내보내어 實際 日新製品이 어떻게 評價되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고 있다.

朱社長은 한번 海外에 다녀온 技術者가 한결같이 愛國者가 되어 오는 것을 흐뭇해 했다. 그러나 애써 많은 社費를 들여 海外에 보내 길러낸 技術者를 다른 企業體에서 뽑아가는 것을 질색해 했다.

이쯤되면 朱社長은 國家에서 해야 할 育英事業도 한셈이다. 아닌게 아니라 朱社長の 後輩養成의 熱意는 大端하다. 每年 10명 정도 工大學生에게 장학금을 支給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條件付가 아니지만 그래도 7, 8년이 지난 오늘날 그 成果는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람 있어 한다.

技術은 첫째 理論部門과 둘째 實地 生産場에서의 應用部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을 쉰드릿치 했을 때 비로소 完全한 技術이라고 朱社長은 技術의 概念을 풀이하면서 여기에 經營技術마저 添得하면 더 바랄게 없다고 부연했다.

아마도 이 모든 條件을 具備한 사람이 바로 朱昌均 社長이리라.

맑게개인 가을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쩌면 저 宇宙空間을 우리 日新製品의 파이프가 날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美國宇宙科學의 工業都市인 휴스톤에 우리 製品이 많이 팔려 갔으니깐요』

조금도 誇張이 없는 朱社長の 이말에 筆者도 가슴이 뿌듯해진다.

日新 그 이름 그대로 날로 새롭고 날로 비약이 있으리라.

